

삼청공원 순환산책길 15

시간이 멈춘 고즈넉한 산책길



걷는구간	관리사무소→삼청공원 후문→말바위 입구 →말바위 전망대→와룡공원 정상→ 성균관대 후문→감사원 후문→관리사무소
걷는거리	2.5km
소요시간	1시간 1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삼청공원은 안국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바로 가도 좋지만 삼청동 거리를 구경하며 걸어가는 것도 좋다.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는 골목 풍경을 구경하다 보면 3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삼청공원은 북악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에 조성된 아주 유서 깊은 공원이다. 물이 맑고 숲이 맑아 사람의 마음이 맑아진다고 해서 ‘삼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역사 또한 길다. 무려 1940년에 도시계획공원 1호로 지정되어 경성부(서울시)가 조선총독부로부터 삼청동 안 임야를 빌려 지금의 공원을 조성했다. 일제 강점기 때 심어놓은 왕벚나무, 산벚나무와 이후 늘어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 등 40여 종 1000여 그루의 수종(樹種)들로 울창하다.

서울엔 저마다 개성을 갖춘 공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삼청공원이 작은 규모에 비해 다채로운 산책길을 많이 품고 있다. 오래 묵은 나무들로 우거진 공원 안 산책로, 카페가 있는 숲속도서관, 한양도성 성곽길과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산책길, 와룡공원 순환산책로 등을 이어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서울의 속살만을 골라서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해준다.

2013년 공원 매점이 있던 자리에 ‘숲속 도서관’이 생겼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큰 통유리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어 좋다. 이곳의 조용함은 ‘삼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즈넉하고 평화롭다. 공원을 거닐다 보면 ‘말바위전망대’ 이정표가 보인다. 나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말바위전망대

계단 좌우로 굽고 흰 소나무 숲길을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의 성곽과 서울의 도심 풍경이 멋지게 펼쳐진다.

‘말바위전망대’를 내려와 성곽길을 따라가면 와룡공원이 나온다. 와룡(臥龍)이라는 뜻과 같이 용이 누워있는 것처럼 공원의 능선이 평탄하게 쭉 뻗어있다. 와룡공원은 산책길이 완만한 데다 숲이 우거져 걷기에 좋다. 특히 봄에는 산수유, 매화, 진달래, 개나리 등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삼청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에 아름다운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말바위



-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종로02번로 환승하여 감사원 정류장에서 하차한다. 감사원을 지나 약 7분 정도 걸아가면 삼청공원 관리사무소가 보인다.
- ☎ 02-2148-2834 종로구청 공원복지과
-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장 별도로 없음 / 화장실과 휴게시설 삼청공원 내 있음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